



하계상 | 삼육대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방법의 진술

구약신학자가 구약 본문의 어휘들을 연구하고 그 본문을 번역하는 작업은, 그 본문을 해석하고 신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한국구약학회 학회지인 「구약논단」에 어휘 연구 및 번역 문제를 다룬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논문들의 수가 매우 적고 그 결과로 그 연구 대상인 어휘도 지극히 한정되어 있으며,<sup>2)</sup> 구약의 핵심적인 어휘들인 미

1) 이 논문은 제9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참조 남대국, “창세기 1장의 번역과 의미”, 「구약논단」, 2집 (1996년 12월), 7-23; 김경래, “신체와 관련된 히브리어 관용어 연구”, 「구약논단」, 3집 (1997년 8월), 25-57; 소형근, “노라(Nora) 비문과 구약의 ‘나기드’ 연구”,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145-162; 김진규, “잠언에 나타난 ‘마스킬’의 번역의 문제”, 「구약논단」, 43집 (2012년 3월), 60-81.





쉬파트(טַשְׁפָּט)와 체데크/츠다카(צְדָקָה/צִדְקָה)를 다루는 논문들도 있으나 그 어휘들 자체의 연구 및 그 번역이 목적이 아닌 경향이 강하다.<sup>3)</sup> 이러한 경향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의 작은 시도로써 본 연구는, 「구약논단」에서 한 번도 취급하지 않은 주제인,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세 단어들에 대한 어휘 연구 및 번역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2:4-25)와 3장의 타락 이야기는 아룸(אֲרוּם, 2:254), 아룸(אֲרוּם, 3:1), 그리고 에룸(עֲרוּם, 3:75), 10, 11)이라는 히브리 단어들을 절묘하게 사용함으로써 언어유희(paronomasia)라는 수사학적 기법에 의해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자연스럽게 서로 관련짓는 동시에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은 기존에 이루어진 거의 모든 연구들이 바로 그 사실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간과하거나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움베르토 캣수토(Umberto Cassuto)의 연구로 보인다.

이 절[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단어 אֲרוּם[‘arúm[‘간교한]과 바로 앞[2장 25절]에 있는 ‘arúmmim[‘벌거벗은]의 유사성에 근거한 언어유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해석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다. 아담과 그 아내는 발가벗었으며[‘arúmmim], 그들은 선악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 자신들의 벌거벗음에 대해 수치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 언어유희를 보다 더 명백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은, 그 후의 [창세기 3장] 7, 10, 11절에 나오는 אֲרוּם[sic] ‘arúm이 아니라 אֲרוּם[‘arúm이라는 형태를 앞 절[2장 25절]에서 사용하고 있다.<sup>6)</sup>

3) 참조 오택현, “제201사야 ‘아웨의 종의 노래’에 나타난 미쉬파트(טַשְׁפָּט)”, 「구약논단」 7집 (1999년 10월), 47-67; 정연호, “구약성경과 유대교의 속죄와 ‘째다카’”, 「구약신학」 35집 (2010년 3월), 161-189; 김래용, “하박국서에 나타난 미쉬파트(טַשְׁפָּט) 연구”, 「구약논단」 48집 (2013년 6월), 99-125.

4) 창세기 2장 25절에는 복수형 아룸뎀(אֲרוּמִים)이 나온다.

5) 창세기 3장 7절에는 복수형 에룸뎀(עֲרוּמִים)이 나온다.

6) Umberto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1, From Adam to Noah, Genesis 1-68*, trans. Israel





즉, 낫수토에 의하면, 아롬과 에롬은 같은 뜻이지만 창세기 2장 25절에서 에롬의 복수형 에롬뭉을 사용하지 않고 아롬의 복수형 아롬뭉을 사용한 의도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절의 아롬과 언어유희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그가 언어유희의 존재를 파악한 것은 우리가 높게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아롬과 에롬을 같은 뜻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그 극적인 대조를 놓치고 있는 그의 입장은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그와 견해를 같이 하는 대부분의 학자들<sup>7)</sup>의 주장은 정말 타당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 세 단어들에 대한 구약의 용례들을 조사하고, 그 각각의 문맥 속에서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규명하는 어휘 연구를 통해 그 단어들에 대한 기존의 번역들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적절한 번역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는 창세기 2-3장이 그 단어들의 절묘한 언어유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 단어들이 사용된 본문의 시대적 차이에 따른 의미 변화의 유무를 염두

Abrahams (Jerusalem: Magnes, 1961), 143.

7) 참조 Herbert Niehr, "אֲרוֹם 'ārôm; אֲרוֹמִים[sic] 'ārôm," *TDOT*, 11:362. "벌거벗음 모티프를 해석할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ārôm과 'ārôm/'êrôm 사이에 언어유희가 있음을 주목한다. 뱀의 간사함('ārôm)이 아담과 그 아내 편에서는 벌거벗음('ārôm/'êrôm)에 대한 지식에 이른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ārôm은 뱀의 간사함('ārôm)에 대한 3장 1절의 언급보다 선행하는데, 3장 7, 10-11절에서는 벌거벗음이 'êrôm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벌거벗음에 대한 다른 제시를 보게 된다. 2장 25절에서는 아직도 벌거벗음이 부정적으로 간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3장 7, 10-11절에서 'êrôm을 선택함으로써 벌거벗음 모티프의 부정적 함의가 분명해진다." Carl F. Keil and Franz J.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1, trans. James Martin, repri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83), 91, Ronald B. Allen, "אֲרוֹם ('ārôm) Beware, Take crafty counsel, Be prudent," *TWOT*, 2:698, Herbert Niehr, "אָרָם 'āram; אֲרוֹם 'ārôm; אֲרוֹמִים 'ārôm; אֲרוֹמָה 'ārômâ," *TDOT*, 11:362, Boyd V. Seevers, "אֲרוֹם," *NIDOTTE*, 3:532, Gordon J. Wenham, *Genesis 1-17*, WBC, vol. 1 (Waco, TX: Word Books, 1987), 71-72,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0), 191 n. 15, 그리고 Alex T. Luc, "אֲרוֹם," *NIDOTTE* 3:539-540도 견해가 거의 같다. 견해가 전혀 다른 예외적인 학자는 리처드 데이빗슨(Richard M. Davidson)인데, 그는 "Human Sexuality in the Hebrew Bible," *Shabbat Shalom* 49/1 (Spring 2002), 26 n. 10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벌거벗은(naked)에 대해 두 개의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한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은'에 대한 단어가 'ārôm인데, 그것은 자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것은 아닌 즉 정상적인 방식으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을 나타낸다. 창세기 3장 7, 10, 11절에서 '벌거벗은'에 대한 단어는 'êrôm인데, 그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항상 전적인(그리고 대개 창피한) 노출의 문맥에 나오는데, '완전히 벌거벗은' 즉 '알몸인' 어떤 사람을 나타낸다."



에 두겠지만 주로 공식적/문학적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되, 창세기 2-3장에 대한 상세한 주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어휘 연구

### 1) 아룸

창세기 3장 1절은 뱀의 속성을 규정하는 히브리 용어로 아룸(אָרוּם)을 사용하고 있다. 구약에서 형용사 아룸은 11번 나오는데 지혜문학(wisdom literature)에 10번 사용되었고,<sup>8)</sup> 동사 아람(אָרַם)<sup>9)</sup>은 6번 나오는데 지혜문학에 3번 사용되었으며,<sup>10)</sup> 명사 오르마(אֲרָמָה)<sup>11)</sup>는 5번 나오는데 지혜문학에 3번 사용되었다.<sup>11)</sup> 따라서 이 단어들은 지혜 용어(sapiential terminology)들로 간주될 수 있다.<sup>12)</sup> 그리고 그 단어들은 아래의 용례들을 통해 드러나듯이 ‘간교, 간사, 교활’(craftiness, cunning, shrewdness)이라는 부정적인 함의(connotation)와 ‘영리함, 현명함, 신중함’(cleverness, prudence)이라는 긍정적인 함의 양쪽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sup>13)</sup>

특히 형용사 아룸은 창세기 3장 1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번 모두 지혜문학에만 나오는데, 2번은 욥기(5:12; 15:5)14)에서 “간교한, 간사

8) 창세기 3장 1절; 욥기 5장 12절; 15장 5절; 잠언 12장 16, 23절; 13장 16절; 14장 8, 15, 18절; 22장 3절//27장 12절. 참조 BDB, 791; HALOT, 2883; Gerhard Lisowsky, *Konkordanz zum Hebräischen Alten Testament*,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1), 1113-1114.

9) BDB, 791과 Allen, “אָרוּם (*‘ārōm*) Beware,” 697에서는 동사형을 아룸(אָרוּם)으로 간주했다.

10) 사무엘상 23장 22절<sup>2x</sup>; 욥기 5장 13절; 시편 83장 4절; 잠언 15장 5절; 19장 25절. 참조 BDB, 791; HALOT, 2886; Lisowsky, 1116.

11) 출애굽기 21장 14절; 여호수아 9장 4절; 잠언 1장 4절; 8장 5, 12절. 참조 BDB, 791; HALOT, 2886; Lisowsky, 1116.

12) Niehr, “אָרוּם *‘ārām*,” 361.

13) 참조 BDB, 791; HALOT, 2886; Lisowsky, 1113, 1116; Walther Zimmerli, “zur Structur der alttestamentlicher Weisheit,” ZAW 51 (1933): 183; Herbert Niehr, “אָרוּם *‘ārām*,” 361-362, 특히 362, “영리함은 … 선이나 악으로 귀결될 수 있다.”; Allen, “אָרוּם (*‘ārōm*) Beware,” 697.

14) 특히 욥기 5장 12절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함의의 אֲרָמָה(투쉬아/성공, 간전한 지혜, 신중[success, sound



한, 교활한”이라는 부정적인 함의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8번은 잠언에서 모두 “영리한, 현명한, 신중한”이라는 긍정적인 함의로 사용되었다.<sup>15)</sup> 따라서 우리는 압도적인 비율로 아람이 긍정적인 함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람이 긍정적인 함의로 사용된 확실한 근거는 근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있다. 첫 번째 사실은, “슬기로운 자”(아람)가 “미련한 자”(מְרִיחַ/מְרִיחִים, 에빌/크실/어리석은[foolish]) 또는 “어리석은 자”(פְּתִי, 페티/단순한, 순진한[simple, naive])와 반의대구(antithetic parallelism)를 이루어 사용되었다(잠 12:16, 23; 13:16; 14:8, 15, 18; 22:3//27:12)는 것이다. 두 번째 사실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אֲוִלָּה, 입벨레트/어리석음[folly])으로 기업을 삼고(14:18),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אֲוִלָּה)을 소유하고(16:22), 나타내며(13:16), 전파하되(12:23), “지혜”(חָכְמָה, 호크마/지혜[wisdom])는 멸시하지만(1:7), “슬기로운 자”(아람)는 “지식”(דַּעַת, 다아트/지식[knowledge])을 감추고(12:23), “지식”으로 행하며(13:16) 면류관을 삼고(14:18), “지혜”를 소유한다(14:8)는 것이다.

동사 아람이 부정적인 함의로 사용된 경우는 3번인데, 사무엘상 23장 22절[2x]에서 사울이 다윗의 거처를 고발하는 십 사람들의 말을 듣고(19-20절) 다윗에 관한 소문을 언급할 때와 시편 83장 3절 [히. 4절]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회의를 언급할 때이다. 아람은 나머지 3번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함의로 사용되었는데, 욥기 5장13절16)에서는 “지혜로운 자”(חָכָם, 하카/영리한, 현명한, 지혜로운[clever, wise])의 영리함으로, 잠언 15장 5절17)에서는 “미련한 자”와 반의대구를 이루

wisdom, prudence)와 대조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조 BDB, 444; HALOT, 4:1714.  
 15) BDB, 791; HALOT, 2883; Lisowsky, 1113-1114; Niehr, “עָרָם” *‘aram*,” 362.  
 16) Contra BDB, 791; Allen, “עָרָם” (*‘arām*) Beware,” 698, 참조 HALOT, 2886; BDB, 791과 Allen, “עָרָם” (*‘arām*) Beware,” 698은 욥기 5장 13절 상단에 사용된 동사 아람의 기본형(Qa) 부정사 복합형을 명사 ~r(오으로 보며 부정적인 함의로 해석했다. 이 해석은 그 인접 문맥인 12절과 13절 하단의 부정적인 내용에서 볼 때 설득력이 있기는 하다(참조 고전 3:19).  
 17) Contra BDB, 791. 참조 HALOT, 2886.





는 부분에서, 그리고 19장 25절(18)에는 “어리석은 자”가 징계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명사 오르마(עֲרֻמָּה)는 “간교, 간사, 교활”이라는 부정적 함의로 2번(출 21:14; 수 9:4), “현명함, 신중함”이라는 긍정적 함의로 3번(잠 1:4; 8:5, 12) 사용되었다.<sup>19)</sup> 사람이 그 이웃을 살인하는 방법(출 21:14)과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오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멸절을 피하고자 그 사신들의 행색을 꾸민 위장술(수 9:4; 참조 3-15절)에 사용된 단어 오르마는 그 부정적인 함의를 드러낸다. 그러나 오르마의 긍정적인 함의는, 잠언 1장 4절에서 잠언의 목적 중 하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오르마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언급, 8장 5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오르마를 이해하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8장 12절에서 “지혜”(חָכְמָה, 호크마/지혜[wisdom])는 오르마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divine attribute)<sup>20)</sup> 언급에 확연히 드러나 있다.

따라서 형용사 아름답지만 아니라 동사 아람과 명사 오르마도 구약에서 부정적 함의와 긍정적 함의 양쪽으로 다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에서는 모두 긍정적인 함의가 지배적이다. 유독 형용사 아람은 잠언에서 긍정적인 함의로만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절의 아람은 어떤 함의로 사용된 것일까?

창세기 3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아름답더라.”고 말함으로써 뱀의 기원과 속성을 언급하고 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sup>21)</sup> 그러므로 만약

18) Contra BDB, 791. 참조 HALOT, 2886; 잠언 1장 4절

19) BDB, 791; HALOT, 2886; Lisowsky, 1116, “cunning, prudence.”

20) 참조 Luc, 540. 1QpHab 7장 14절은 하나님이 그의 오르마에 의해서 역사를 명했다고 말한다(Maurya P. Horgan, *Pesharim: Qumran Interpretations of Biblical Books* [Washington: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79], 17; 참조 Luc, 540).

21) Niehr, “עֲרֻמָּה ‘āram,” 362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창세기 3장 1절의 아람을 부정적인 함의로 이해하여 뱀의 간교한 교활성으로 해석한 후, 마치 John Skinn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2nd ed., ICC, vol. 1 (Edinburgh: T & T Clark, 1930), 72처럼, 뱀의 생물학적 특성으로부터 뱀의





하나님이 “간교한” 뱀, 즉 “간교한” 속성을 가진 뱀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는 창조의 완전성에 대한 언급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의 창조사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귀결된다.<sup>22)</sup> 그럴 경우 창세기 3장 13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는 하나님의 추궁을 듣고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나이다.”라고 한 여자의 답변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여자를 핑계대면서 변명하는 아담을 연상시키는 정도를 넘어선다. 여자의 그 답변은 ‘하나님은 왜 뱀을 만드셨습니까?’라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간교한 뱀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지경이 되도록 하셨습니까?’라고 오히려 반박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하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람(אָרַם)은 긍정적인 함의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것을 “간교한”이라는 부정적인 함의로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절의 아람은 긍정적인 함의인 “영리한” 또는 “현명한/지혜로운”으로 번역되어야 마땅할 것이다.<sup>23)</sup>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다른 들짐승과 특별히 구별되는 특성은 결코 말

지혜를 도입하는 비성서적인 논리 전개를 통해 창세기 3장 1절의 아람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함의는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창세기 3장 1절은 뱀의 지혜의 애매한 속성을 모호한 용어인 아람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참조 Niehr, “אָרַם” ‘aram,” 363).

22) 카수토는 “그들은 얇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간교(אָרַם ‘aram)는 부족하지 않았다. 그들 속에 있는 뱀이 간교했다.”고 뱀을 풍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Cassuto, 143; 참조 142, 146, 168).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간교하게 만든 셈이 되므로 그의 창조사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결국 피할 수 없게 된다.

23) 참조 Marcus Jastrow,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almud Babil, Yerushalmi and Midrashic Literature* (New York, NY: Judaica, 1971), 115: “prudent, deliberate, wise; (in an evil sense) subtle, cunning.”





하는 능력<sup>24)</sup>이나 말할 때의 신중한 전략<sup>25)</sup>에 있지 않았다. 만일 뱀이 인간과 말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면, 뱀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과 말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과 그 아내가 타락한 후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고에는 인간과 말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철회가 없기 때문이다(참조 14절).<sup>26)</sup> 성경에서는 그 어떤 동물도 말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말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결국 정반대되는 말<sup>27)</sup>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세력이 그 뱀을 통해 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sup>28)</sup> 적대자<sup>29)</sup>인 유혹자<sup>30)</sup>가 뱀을 매개물로 삼아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sup>31)</sup> 따라서 아담과 그 아내가 타락한 후 하나님

24) Contra Niehr, “אָרָם” *‘āram*, 362: “뱀은 다른 들짐승으로부터 구별되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피조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지혜를 얕으로 인해서 오는 특별한 양식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뱀은 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25) Contra Hamilton, 188: “뱀에 대한 적절한 묘사, 즉 여자와 대화를 시작할 때 뱀이 신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적절히 나타내는 묘사로서 ‘교활한 영리한’을 택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26) “지혜로운”(아름) 들짐승인 뱀이 마침내 “저주를 받았다”(아무르[אָמֹר/저주받은, inflicted with a curse]). 여기 서도 부분적인 언어유혹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조 Hamilton, 196.

2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는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와 정반대로 뱀은 결국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3:4)고 말했다.

28) 참조 C. John Collins, *Genesis 1-4: A Linguistic,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Phillipsburg, NJ: P&R, 2006), 171.

29) 참조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

30) 참조 요한복음 8장 44절.

31) Collins, 171. “비록 창세기가 그 뱀을 사탄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지만, 그 뱀은 단순히 뱀으로서가 아니라 흑암의 세력을 위한 대변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델리취(Delitzsch)가 ‘동물’을 뜻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악의 원리에 의해 저절로 도구가 된 동물이다. ... 화자는 현실 뒤에 있는 휘장을 걷어 올리지 않고 일어난 일의 외양에 자신을 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듯이 말이다.” 이것은, 비록 그 목적과 입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마치 민수기 22장 28-30절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 나귀의 입장에서 나귀가 말하도록 한 것과 비견할 수 있다(참조 뱀후 2:15-16). 참조 Franz J. Delitzsch, *A New Commentary on Genesis* (Edinburgh: T & T Clark, 1888); Keil and Franz, 191-94, 특히 93: “뱀은 단순히 사탄에게 적용된 상징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한 형태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탄에 의해 그의 유혹의 도구로 악용된 진짜 뱀이었다(창세기 3장] 1, 14절).” Afolarin Olutunde Ojewole이 그의 논문 “The Seed in Genesis 3:15: An Exegetical and Intertextual Study” (Ph. D. dissertation, Andrews University, Seventh-day Adventist Theological Seminary, 2002), 355-356에서 언급했듯이, 고대 근동의 문헌들 중 이 집트 문헌들에는 짐승들이 사람에게 말하는 예들이 있기는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헌들에는 짐승들이(심지어 나무들도) 사람에게보다는 그들끼리 서로 말한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 중에서 짐승으로서의 뱀이 말을





은 그들에게는 메시아와 그의 결정적인 승리를 약속하셨고,<sup>32)</sup> 그 적대자 요 유희자에게는 결정적인 패배를 선언하셨던 것이다(15절).<sup>33)</sup>

뱀이 다른 들짐승과 특별히 구별되는 특성은, 창세기 3장 1절이 분명히 언급하듯이 영리함이나 현명함/지혜로움에 있었다.<sup>34)</sup> 히브리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칠십인 역(LXX, the Septuagint)은 뱀의 특성을 묘사한 아룸(창 3:1)을 번역할 때 헬라어 프로니모스(φρόνιμος, 현명한, 사려깊은[wise, thoughtful])를 사용했는데, 요셉(창 41:39; 참조 33절)과 솔로몬(왕상 3:12; 5:21)을 묘사한 하캄(חכם, 영리한, 현명한, 지혜로운[clever, wise])<sup>35)</sup>을 번역할 때도 바로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절은 뱀을 묘사할 때 아룸 대신에 형용사 하캄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유사한 어의 영역(語義 領域, semantic range)의 동사 사칼(סָכַל, 현명하다, 지혜롭다, 통찰력이 있다[be prudent,

하는 예가 있기는 하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말한다(참조 ANET, 114-118)

32)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proteuangelium*)인지 아닌지에 관한 간략한 논의는 Werham, 79-81, Hamilton, 197-200, 그리고 Collins, 155-159를 참조하라. 그 논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자세하고 깊은 연구로는 Ojewole의 창세기 3장 15절에 관한 논문을 참조하라. Ojewole은 그의 논문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는 것을 설득력있게 확실히 규명하고 있다.

33) 개역한글판의 창세기 3장 15절("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히브리 본문에 의하면 "내가 나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enmity*)을 둘 것이니 그[3인칭 남성 단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이다. 창세기 3장 14절은 인간의 타락에 매개물로 이용된 뱀에 대한 선고이지만(*contra* Collins, 163), 3장 15절은 뱀을 매개물로 이용한 유희자에 대한 선고이다.

34) *Contra* Keil and Delitzsch, 1:94. 참조 Skinner, 71: "형용사 ~*Wif*은, 비록 여기서의 문맥에 의하면 나쁜 의미(*φανούργος*)를 의도한 것이 확실하지만, 좋은 의미(*φρόνιμος*)로 사용된 것 같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fronimos*)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눅 16:1-13)에서 8절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φρονίμως*)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φρόνιμος*)이니라.'는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칭찬과 예수님의 부연설명을 참조하라. 창세기 3장 1절의 히브리어 아룸을 부정적인 함의로 이해한 학자들은 로날드 알렌(*Ronald B. Allen*)처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조 Allen, "עִרְוָה (*ārōn*) Beware," 698: "이 근본적인 구절(창 3:1)을 허용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훨씬 더 놀란다: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phronimos*)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

35) 참조 BDB, 314-315; HALOT, 1:314.





have insight])36)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sup>3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카미나 사칼 대신에 아롬을 사용한 것은, 아롬과 에롬<sup>38)</sup>에 대한 아래의 어휘 연구가 보여주듯이, ‘아롬(2:25), 아롬(3:1), 에롬(3:7, 10, 11)’이라는 언어유희(word play)를 통하여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자연스럽게 서로 관련짓는<sup>39)</sup> 동시에 타락 이후의 인간 모습(에롬)을 타락 이전의 인간 모습(아롬)과 극적으로 대조시키면서<sup>40)</sup> 그 비극적인 사건의 단초(아롬)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sup>41)</sup>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3장 1절의 아롬은 인간의 타락에 매개물이 된 “지혜로운” 뱀과 그 뱀을 매개물로 삼은 “간사한” 유혹자 모두를 염두에 둔 중의법(double entendre)일 수도 있다.<sup>42)</sup> 그럴 경우에는 창세기 3장 1절의 아롬을 기존의 번역과 다르게 적절히 번역할 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36) 참조 BDB, 968; HALOT, 31328. 특히 사편 2장 10절; 14장 2절; 36장 3절(히. 4절); 53장 2절(히. 3절); 94장 8절; 잠언 1장 3절; 10장 5, 19절; 15장 24절; 17장 2절; 욥기 22장 2절 등을 참조하라.
- 37) 참조 Niehr, “ארם ‘āram,” 364: “잠언에서 hākām이 지혜로운 자의 전형이듯이 ‘ārūm이라는 용어는 신중한/현명한 사람의 전형이다. ... 만일 우리가 이 구절들에서 ‘ārūm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것들은 사려 깊음, 신중함, 용의 주도, 그리고 현명함에 있다. ‘ārūm인 사람은 잠언이 가르치는 생명의 길의 화신이다. 이것은 또한 ‘ārūm인 사람에게 돌리는 *hokmā* (14:8)와 *da’at* (12:23; 13:16; 14:8)의 속성들에서도 명백하다.”; Allen, “ארם(‘ārōm) Beware,” 697: “ārōm은 긍정적인 함의(신중한/현명한)와 부정적인 함의(간교한)를 가진 어근이다. 그것은, 항상 긍정적인 그 긍정적인 동의어 šakal ‘능숙하다, 지혜롭다’와 대조될 수 있다.”
- 38) 아롬과 에롬은 특이하게도 고대근동 언어 중 히브리어와 사마리아어에서만 그 존재가 입증된다(참조 HALOT, 2882; Seevers, “ארם,” 532).
- 39) Hamilton, 187.
- 40) 참조 Skinner, 71: “그것은 기자(記者)가 생각한 인간의 원래 상태와 실제 상태 간의 차이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 41) 참조 Niehr, “ארם ‘ārōm,” 351: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7, 10, 11절에서 ‘ārōm/ērōm이 네 번 나타남으로 인해 그 용어들은 그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Wenham, 71: “이 절[창세기 2장 25절]은 중요한 설화 기능을 갖고 있다.” 뱀을 묘사할 때 아롬(ארם) 대신에 하카미(חכמי)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여러 주장들과 그 비판에 대해서는 Hamilton, 187-188을 참조하라.
- 42) 그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 사탄(Satan)을 “옛 뱀”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우리에게 매개물로서의 뱀과 그 뱀을 매개물로 삼았던 유혹자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것과 같다. 참조 고린도후서 11장 3절. 예수께 고난과 죽음으로의 길, 즉 십자가로의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 참조 막 8:33)라고 예수께서 발하신 말씀도 잠시 유혹자의 도구가 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책망인 동시에 유혹자요 대적자인 사탄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다.



## 2) 에롬

창세기 3장에는 타락한 후의 인간 모습을 규정하는 히브리 용어 에롬(ערום/ערום/ערום)이 3번 언급되어 있다(7, 10, 11절). 에롬은 구약에 10번 나오는데, 5번(창 3:7, 10, 11; 겔 18:7, 16)은 형용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5번(신 28:48; 겔 16:7, 22, 39; 23:29)은 명사상당어(substantive)로 사용되었다.<sup>43)</sup>

에롬은 신명기 28장 48절에서, 바로 앞 47절의 “풍족”과 대조적으로 언약 불순종에 따른 저주로서 적국에서의 “핍절”(48절)로 인한 ‘헐벗음’의 의미로 주립 및 목마름과 함께 나온다. 이 경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헐벗음인지 비록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가 극심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에롬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은 무엇보다도 에스겔이다. 에스겔은 에롬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책인데, 그 단어가 6번이나 사용되었다(16:7, 22, 39; 18:7, 16; 23:29<sup>44)</sup>). 에스겔 16장에는 창세기 3장과서와 같이 에롬이 3번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은, 에롬의 뜻을 부연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아라(ערה) 벌거벗다, 드러내다[be naked, bare, expose]<sup>45)</sup>에서 파생된 명사 에르야(עריה, 벌거벗음[nakedness])<sup>46)</sup>가 특별히 에롬과 세 번 다 병치(並置, juxtaposition)되어 있기(7, 22, 39절) 때문이다. 바로 그 에르야는 미가 1장 11절에서 “수치”(shame, shamefulness)를 의미하는 보세트(בשת)<sup>47)</sup>와 복합어(construct chain)를 이루어 에르야-보세트(עריה-בשת)

43) HALOT, 2823; 참조 BDB, 735-736; Lisowsky, 1060.

44) BDB, 736에서 에스겔 22장 29절은 에스겔 23장 29절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45) HALOT, 2881-882; 참조 BDB, 788.

46) HALOT, 2883; Herbert Niehr, ערה 'ārā; מורה mōrā; עריה ma'ar; עריה 'erwā; ערי, 'eryā. TDOT, 11:344; 참조 BDB, 789. 에르야는 구약에 6번(겔 16:7, 22, 39; 23:29; 미 1:11; 합 39) 나오는데, 에스겔에 집중되어 있다. 참조 Lisowsky, 1114.

47) 참조 HALOT, 1:165, “exposing, disgrace, i.e. stripping to humiliate”; BDB, 102, “nakedness (that is) shame.”



עָרְוָה, “수치스러운 벌거벗음”[shameful nakedness]48), “벌거벗은 수치”[naked shame]49)로 나옴으로써 그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0장 30절에는 ‘성기 노출’의 의미가 가장 뚜렷한 히브리어 에르바(עֲרֻבָּה, 벌거벗음[nakedness, nudity])50)가 보세트(בִּשְׁת)와 복합어를 이루고 있는 보세트 에르바트(עֲרֻבַת בִּשְׁת, 벌거벗은 수치[the shame of the nakedness])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르바가 ‘성기 노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것이 에르야처럼 아라에서 파생된 명사로서51) 구약에 54번 나오는데, 레위기(32x)와 에스겔(7x)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52) 레위기 18장 6-19절53)의 금지된 성관계54) 규정에 24번, 그리고 그 규정 위반에 대한 형벌로 레위기 20장 11, 17-21절55)에 8번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에롬의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 에스겔은 에롬이 나오는 에스겔 16장 7절과 관련지어 바로 그 다음 8절에 성기 노출의 의미가 가장 뚜렷한 용어 에르바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에스겔 23장 29절은 에롬이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서 에르야 뿐만 아니라 에롬의 의미를 가장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에롬이 에르야 및 에르바와 함께 언급되어 있기

48) NASB.

49) NKJV.

50) BDB, 788, “nakedness, pudenda”; HALOT, 2882, “nakedness, genital area of a man or of a woman”; Lisowsky, 1113: “nakedness, privy parts.” 참조 Niehr, “עָרְוָה ‘ārā,” 347-348.

51) HALOT, 2882; Lisowsky, 1113; Niehr, “עָרְוָה ‘ārā,” 344.

52) 창세기 9장 22, 23절[2x]; 42장 9, 12절; 출애굽기 20장 26절; 28장 42절; 레위기 18장 6, 7[3x], 8[2x], 9[2x], 10[3x], 11[2x], 12, 13, 14, 15[2x], 16[2x], 17[2x], 18, 19절; 20장 11, 17[3x], 18, 19, 20, 21절; 신명기 23장 15절; 24장 1절; 사무엘상 20장 30절; 이사야 20장 4절; 47장 3절;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 에스겔 16장 8, 36, 37절[2x]; 22장 10절; 23장 10, 18, 29절; 호세아 2장 9절[히, 11절]. 참조 Lisowsky, 1113; Niehr, “עָרְוָה ‘ārā,” 344. 아람어 상당어인 아르바(עֲרֻבָּה)는 에스라 4장 14절에 한 번 나올 뿐이다(참조 BDB, 1107).

53) 참조 레위기 18장 20절.

54) 레위기와 에스겔에서 에르바는 주로 동사 갈라(גָּלָה, 드러내다[uncover])의 수동형(Niphal) 또는 강제형(Piel), 그리고 동사 리아(רָאָה, 보다[see])의 기본형(Qal)과 결합되어 성관계를 뜻하는 완곡어법(euphemism)에 사용되었다. 참조 Boyd V. SeEVERS, “רָאָה,” MDOTTE, 3528-529.

55) 참조 에스겔 22장 9c-11절.





때문이다.

따라서 히브리 용어 에롬은 특히 하체가 드러나 성기가 노출되는 창피와 수모의 “벌거벗음”(nakedness, nudity)을 뜻한다. 창세기 3장의 에롬은, 창세기 3장 자체가 그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는 바와 같이, 타락한 후의 아담과 그 아내의 모습인 ‘창피와 수모의 전라(全裸, complete nakedness)’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한 그들의 죄의식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sup>56)</sup>

### 3) 아롬

타락하기 전의 인간 모습을 묘사한 아롬(창 2:25)은 타락한 후의 인간 모습을 묘사한 에롬(3:7, 10, 11)과 같은 뜻일까, 아니면 다른 뜻일까? 만약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

히브리어 아롬(עָרוֹם/עָרָו)은 형용사로서 구약에 16번 나오는데<sup>57)</sup>, 욥기 [5x]와 이사야[4x]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두 책에서의 용례가 그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롬은 태어날 때나 죽을 때의 벌거벗은 적신(赤身)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다(욥 1:21[2x]; 전 5:15[히. 14]; 호 2:3[히. 5]). 이와 같은 경우에 아롬은 전라(全裸)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sup>58)</sup> 그러나 그럼에도

56) 참조 창세기 3장 7-11, 21절.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에덴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답변 속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언급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조 Collins, 173 n. 66; Ronald B. Allen, עָרוֹם (‘ārā) Uncover, Leave destitute, Discover, Empty, Reaze, Pour out,” *TLOT*, 2695; Carl Schultz, עָרוֹם (‘ār) II, Be exposed, Laid bare,” *TLOT*, 2656,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되어(창 3:7, 10, 11), 그것[‘ārōm]은 성의식(sex consciousness)이상을 가리킨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께 공개되었다는 깨달음을 묘사한다.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가 손상되었으며, 그들 상호간의 관계도 망쳐졌다.” 히브리서 4장 12-13절도 참조하라.

57) 창세기 2장 25절; 사무엘상 19장 24절; 욥기 1장 21절[2x]; 22장 6절; 24장 7, 10절; 26장 6절; 전도서 5장 15절[히. 14절]; 이사야 20장 2, 3, 4절; 58장 7절; 호세아 2장 3절[히. 5절]; 아모스 2장 16절; 미가 1장 8절. 참조 Lisowsky, 1113; BDB, 736; HALOT, 2882-883.

58) 욥기 26장 6절에서 스올(Sheol)이 아바돈(Abaddon)처럼 하나님 앞에 아롬이라는 것도 비록 비유적이지만 결국 이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불구하고 성기 노출로 인한 창피나 수모가 그 근본적인 함의는 아니다.<sup>59)</sup>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childlike innocence)을 결코 의미하고 있지도 않다.

아름은 그 외의 모든 용례에서 예롭과는 달리, 격식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지만 무엇인가를 입고 있기는 한 모습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사야 20장 2-4절에는 애굽과 구스가 앗수르 왕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적인 징조 행위(prophetic sign action)/예언적인 상징 행위(prophetic symbolic act)를 통해 언급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 여기서 포로의 모습은 “벗은 발로”(עָרֹם, 아헤프/맨발로 [barefoot])과 그것에 선행하여 병치되어 있는 아름답이다.<sup>60)</sup> 따라서 포로와 관련하여 사용된 아름답은 하체가 드러나 성기가 노출되는 벌거벗음이 아니라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한 것, 아마도 단순히 속옷만을 입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sup>61)</sup> 그러므로 여기서는 “벗은 몸으로” 정도가 아름답에 대한 적절한 번역일 것이다.

59) 특히 호세아 2장 3절[히. 5절; 참조 9절[히. 11절]]에 관해서는 간음한 아내의 경우 남편이 부양의 의무 없이 그녀와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대 근동의 혼인법을 참조하라(Niehr, “עֵרֹם 'ārôm,” 353-354; idem, “עָרָה 'ārâ,” 346).

60) 역대하 28장 15절에 나오는, 아름답과 관련된 명사인 마이롬(מַיְרוֹם)은 포로의 모습을 언급하는 단어이므로 “벗은 자”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HALOT, 2616; 참조 BDB, 736). 그러므로 “ērôm에서 유래한 명사당어 ma'arumm도 있다.”고 한 Niehr, “עֵרֹם 'ārôm,” 351의 언급은 옳지 않다. 그리고 비록 문맥은 다를지라도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하여 애통하며 애곡하는 미가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는 미가 1장 8절의 “벗은 발”(עָרֹם, 솔라/맨발의[barefoot]) 다음의 아름답도 “벌거벗은 몸”보다는 “벗은 몸”이라는 번역이 적절할 것이다. 개역한글판에는 “벌거벗은 몸”이라고 번역한 결과로 히브리 본문과는 달리 “벗은 발”이 빠져 있다. 참조 Wilhelm Rudolf, *Micha-Nahum-Habakuk-Zephanja*,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neue Reihe, Band 13/3 (G. Tersch: Gerd Mohn, 1975), 42 n. 20; Niehr, “עֵרֹם 'ārôm,” 353; “맨발로 가는 것에 대한 언급은 'ārôm이 전적인 노출이 아니라 걸옷의 제거만을 가리킴을 나타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니르의 미가 1장 8절에 대해서 한 자신의 진술과는 모순되게 이사야 20장 2-4절에 관해서는 “이 문맥에서 'ārôm의 의미는 saq라는 용어가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용어는 음부를 가리는 띠/허리에 두르는 천 (loincloth) 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리는 덮개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353)라고 언급하고 있다. 참조 Schultz, “עָרֹם ('ūr) II, Be exposed,” 656.

61) Edward J. Young, *The Book of Isaiah: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vol. 2,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69), 55; Seevers, “עָרֹם,” 533. 사해사본(DSS)의 증거에 관해서는 Seevers, “עָרֹם,” 533을 참조하라.





이사야 58장 7절과 욥기 22장 6절, 그리고 24:7,<sup>62)</sup> 10절은 구제가 절실히 필요한 배고프고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아롬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빈민과 관련하여 사용된 아롬은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헐벗은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sup>63)</sup>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아롬을 “헐벗은”이라고 번역해야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특히 욥기 22장 6절은 아롬의 의미 파악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 2장 25절 외에 아롬의 복수형 아롬밌(עֲרוֹמִים)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 바로 욥기 22장 6절이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 재난과 질병은 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네가 아롬밌의 옷을 벗겼다.”고 언급했다. 만일 아롬이 전라의 벌거벗음을 뜻하고, 그래서 여기의 아롬밌이 “벌거벗은 자들”을 뜻한다면, “벌거벗은 자들의 옷”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벌거벗은 자들에게 벗겨질 옷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서 아롬은 “헐벗은”(poorly clothed)이라는 의미가 분명하다. 그것은 하체가 드러나 성기가 노출되는 전적인 노출을 결코 뜻할 수 없다. 아롬은 ‘완전한 벗음’(complete nakedness)이 아니라 ‘부분적인 벗음’(partial nakedness)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롬은, 여기에서 ‘헐벗음’을 뜻하는 것처럼, 다른 상황에서는 ‘속옷 차림, 속옷 바람’을 뜻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64)</sup>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아모스 2장 16절, 사무엘상 19장 24절,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에서의 아롬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아모

62) HALOT, 2883에서 욥기 24장 6절은 욥기 24장 7절로 수정해야 한다.

63) 참조 Schultz, “עָרָם (‘ārām) II, Be exposed,” 656.

64) 참조 HALOT, 2883: “lightly dressed [in under-garments only].” 신명기 28:48에서 예롬을 굼노테스(γυμνότης)로 옮긴 것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 아롬과 예롬을 모두 헬리어 굼노스(γυμνός)로 옮긴 칠십인 역(LXX)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참조 Niehr, “עָרָם ‘ārām,” 354), 헬리어 굼노스는 ‘부분적인 벗음’ 뿐만 아니라 ‘완전한 벗음’도 의미했다. 신약의 경우 마가복음 14장 51절이나 요한복음 21장 7절은 부분적인 벗음을 뜻한다. 특히 요한복음 21장 7절은 베드로가 “벗고 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 2장 16절은 아무리 용맹무쌍한 사람일지라도 여호와의 날에는 아롬 상태로, 즉 “그의 [갑옷과 투구, 그리고] 무기를 버리고 [가벼운 옷차림, 즉 속옷 바람으로]” 도망할 것<sup>65)</sup>이라고 예언한다.

사무엘상 19장 24절<sup>66)</sup>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옴으로 가던 중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곳에 이르기까지 예언하다가 마침내 그가 “그 옷을 벗고<sup>67)</sup>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아롬] 누웠었더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의] 옷을 벗고”라는 동작 표현이 먼저 있던 후 아롬이 나오기 때문에 아롬도 하체가 드러나 성기가 노출되는 “벌거벗음”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결과로 “예언적 황홀경에서”(in prophetic ecstasy)<sup>68)</sup> 벌거벗어 하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사울이 예언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는가?<sup>69)</sup> 비록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결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왕인 그를 하나님이 그토록 창피와 수모를 당하도록 하셨을까? 그것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그렇게 하셨다면 더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보이드 세베르(Boyd V. Seevers)가 주장했듯이, “부정적인 언급이 없다는 사실과 그 문맥, 즉 ‘하나님의 신’에 의해 인도되었고, 사무엘이 그곳에 있었으며, 정상적인 예언 행위가 나타난 것은 사울의 벌거벗음이 부적절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사울은 완전한 나체는 아니었을 것

65) 참조 Schultz, “עָרָה (’ûr) II, Be exposed,” 656; HALOT, 2883, “a brave man who takes to flight leaving his armour behind.”

66) 참조 사무엘상 19장 18-23절.

67) 파사트(פָּסַח, 벗다[strip off]).

68) HALOT, 2883.

69) 참조 Lesêtre, “Nudité,” Dictionnaire de la Bible, 4:1713; Niehr, “עָרָה ‘ārām,” 354: “무아지경의 한 현상으로서의 벌거벗음이 선지자들 중에서의 사울의 이야기에 언급되어 있다(삼상 19:18-24). 욕기 22장 6절과 24장 7, 10절, 그리고 이사야 20장 2-4절에서처럼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전적인 노출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단지 겹옷을 벗은 것을 가리키는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니르의 바로 이어서 “무아지경의 문맥은 전차일 가망성이 있도록 만드는데, 특히 그 묘사가 제의(cult) 밖의 무아지경, 즉 취태(drunkness)에 의해 아기된 벌거벗음(창 9:2; 합 2:15; 렘 4:21)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는 행위를 유감스럽게도 술에 취해 술주정을 부리는 일과 관련짓고 있다(354).





이다.<sup>70)</sup> 그러므로 비록 왕으로서 합당치 못하게 왕복을 벗은 차림이었겠지만, 사울은 필시 적어도 속옷만은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아롬은 “속옷 차림으로” 또는 “속옷 바람으로”라고 번역해야 합당할 것이다.<sup>71)</sup>

창세기 2장 25절의 아롬도, 비록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지<sup>72)</sup> 아니하리라.”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 타락 이전의 아담과 그 아내의 어린애와 같은 순진무구함(childlike innocence)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에롬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일까? 창세기 2장 25절을 그 인접 문맥인 24절에서 볼 때 그것이 아담과 그 아내의 결혼 초야를 묘사한 말이라면 문자 그대로 “벌거벗은”이라고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지도 모른다.<sup>73)</sup> 그러나 아담과 그 아내가 옷을 입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의 타락 후였음을 생각한다면, 이 아롬은 타락 이전의 그들의 모습을 묘사한 용어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만약 그들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벌거벗고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재창조는 창조로의 복귀요 구속의 최종 목표는 낙원의 회복’<sup>74)</sup>이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문자 그대로 나체촌(裸體村, nudist colony)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벌거벗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나체촌 말이다. 그러나 구약은 신약과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결코 그러한 곳으로 묘사하지 않는다(사 65:17-25; 66:22-

70) 참조 Seevers, “בִּיָּד,” 532.

71) Contra BDB, 736; HALOT, 2883, 참조 Carl F. Keil and Franz J.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 trans. James Martin, repri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82), 197, “בִּיָּד, γυμνός는 전적인 노출을 항상 의미하지는 않고, 걸옷을 벗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72) 보수(בוש, 부끄러워 하다[be ashamed]).

73) Keil and Delitzsch, 191처럼 Davidson, “Human Sexuality,” 25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74) “Endzeit gleicht Urzeit”라는 헤르만 궁켈(Hermann Gunkel)의 위대한 명제는 Ernst B. Klen, *Die Verwandtschaft der jüdisch-christlichen mit der Parsischen Eschat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2), 1360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 참조 John H. Sailhamer, *Genesis Unbound: A Provocative New Look at the Creation Account* [Sisters, OR: Quester Publishers, Inc., 1996], 43: “The last things will be like the first things.”



23; 참조 11:6-9).<sup>75)</sup>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창 1:26-27)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시 8:5)다. 그렇다면, “존귀와 권위를 입으”(104:1 하단)신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2절 상단)신 것<sup>76)</sup>처럼 아담과 그 아내도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 이전의 아담과 그 아내는 그 어떤 인공적인 옷도 입고 있지 않았지만 ‘빛을 옷처럼 입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들의 바로 그 모습이 아롬(복수형 아롬뿤, 창 2:25)이며, 따라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유혹자는 “영리한/지혜로운” 짐승인 뱀을 매개물로 삼아 아담의 아내를 유혹했고 유혹에 빠진 그녀를 통해 아담을 유혹함으로써 아담과 그 아내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두르고 있던 그 빛은 마침내 그들에게서 영원히 떠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에롬(복수형 에롬뿤, 3:7), 즉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구약의 용례에서 드러난 세 히브리 단어들, 즉 아롬, 아롬, 그리고 에롬의 의미와 문맥에 따른 적절한 번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창세기 2-3장에서 그 단어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75) 신약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민들이 “흰 옷”(계 34, 5: 44; 7:9, 13, 14)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라는 부분은 흥미롭게도 창세기 2장 25절의 “아롬이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를 연상시킨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흰 옷”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를 상징하지만(참조 갈 3:27; 계 7:14), 히브리어 아롬이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아담과 그 아내가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 아닐까? 변화산 위에서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마 17:2) 또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막 9:3)고 묘사된 그 예수의 옷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입을 “흰옷”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76) 참조 디모데전서 6:16, “오직 그[하나님]에게만 ...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

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형용사 아룸, 동사 아람, 그리고 명사 오르마는 부정적인 함의와 긍정적인 함의 양쪽으로 다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잠언에서는 모두 긍정적인 함의로만 사용되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 특출한 뱀에 대한 묘사로 사용된 창세기 3장 1절의 히브리어 아룸은 긍정적인 함의로 사용된 것이 확실하므로 “간교한”이라는 부정적인 함의보다는 “영리한, 지혜로운”이라는 긍정적인 함의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절의 아룸을 “간교한”이라고 번역한 것은 합당하지 못하므로 “영리한” 또는 “지혜로운”이라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세기 3장 1절의 아룸은 인간의 타락에 도구가 된 “지혜로운” 뱀과 그 뱀을 도구로 삼은 “간사한” 유혹자 모두를 염두에 둔 중의법(double entendre)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창세기 3장 1절의 아룸을 적절히 번역할 길은 없다.

넷째, 히브리어 에룸은 창세기 3장 자체에서도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특히 에스겔 16장 7절과 23장 29절에서 ‘성기가 노출되는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르야 및 에르바와 병치되어 있어 ‘창피와 수모의 전라(全裸)’를 뜻한다.

다섯째, 창세기 3장 7, 10, 11절의 히브리어 에룸(복수형 에룸뫼)은 타락한 아담과 그 아내의 죄의식과 더불어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의 에룸은 ‘전라’를 의미하는 “벌거벗은”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확하다.

여섯째, 히브리어 아룸은 태어날 때나 죽을 때의 적신(赤身)을 의미하는 “벌거벗은”이라는 뜻으로 극히 일부 사용되기도 했지만, 성기 노출로 인한 창피나 수모가 그 근본적인 함의는 결코 아니며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을 의미하고 있지도 않다.

일곱째, 히브리어 아룸은 격식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으나 무엇인가



를 입고 있기는 한 모습을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창세기 2장 25절 외에 아롬의 복수형 아롬뫼가 유일하게 나오는 욥기 22장 6절은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전라’가 아니라 ‘부분적인 벗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롬은, 적신을 뜻하는 극히 일부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문맥에 따라서 “벗은 몸으로”, “털벗은”, “속옷 차림으로”, 또는 “속옷 바람으로”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창세기 2장 25절에서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에 대해 묘사한 히브리어 아롬(복수형 아롬뫼)은, 그들의 어린애 같은 순진무구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빛을 옷처럼 입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도 빛을 옷처럼 입혔을 것임이 틀림없으며, 그들의 바로 그 모습이 아롬(복수형 아롬뫼, 창 2:25)이었으나 타락으로 인하여 그들을 두르고 있던 그 빛의 옷은 그들에게서 영원히 떠나고 말았고, 그 결과 그들은 에롬(복수형 에롬뫼, 3:7), 즉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아홉째, 창세기 2장 25절의 히브리어 아롬에 대한 “벌거벗은”이라는 번역은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리 번역할 적절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열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감(חַגְמָה, 영리한, 현명한, 지혜로운)이나 사칼(סָכַל, 현명하다, 지혜롭다, 통찰력이 있다)이 아니라 아롬을 사용한 것은 2장 25절의 아롬 그리고 3장 7, 10, 11절의 에롬과의 언어유희를 염두에 둔 것임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롬(2:25), 아롬(3:1), 그리고 에롬(3:7, 10, 11)으로 이어지는 언어유희는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서로 관련짓는 동시에 타락 이후의 인간 모습(에롬)을 타락 이전의 인간 모습(아롬)과 극적으로 대조시키면서 그 비극적인 사건의 단초(아롬)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 4. 참고문헌

- 김경래, “신체와 관련된 히브리어 관용어 연구.” 「구약논단」 3집 (1997년 8월), 25-57.
- 김래용, “하박국서에 나타난 미쉬파트(משפט) 연구.” 「구약논단」 48집 (2013년 6월), 99-125.
- 김진규, “잠언에 나타난 ‘마스킬’의 번역의 문제.” 「구약논단」 43집 (2012년 3월), 60-81.
- 남대극, “창세기 1장의 번역과 의미.” 「구약논단」 2집 (1996년 12월), 7-23.
- 소형근, “노라(Nora) 비문과 구약의 ‘나기드’ 연구.”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145-162.
- 오택현, “제2이사야 ‘야웨의 종의 노래’에 나타난 미쉬파트(משפט).” 「구약논단」 7집 (1999년 10월), 47-67.
- 정연호, “구약성경과 유대교의 속죄와 ‘째다카’.” 「구약신학」 35집 (2010년 3월), 161-189.
- Allen, Ronald B, “עָרָה ('ārâ) Uncover, Leave destitute, Discover, Empty, Raze, Pour out.” *TWOT*, 2:695.
- , “עָרֹם ('ārôm) Beware, Take crafty counsel, Be prudent.” *TWOT*, 2:697-698.
-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Third ed. with supplement. Edited by James B. Pritchar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Büklen, Ernst, *Die Verwandtschaft der j disch-christlichen mit der Parsischen*

- Eschat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2.
- Cassuto, Umber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1, From Adam to Noah, Genesis 1-6:8*. Translated by Israel Abrahams. Jerusalem: Magnes, 1961.
- Collins, C. John, *Genesis 1-4: A Linguistic,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Phillipsburg, NJ: P&R, 2006.
- Davidson, Richard M, "Human Sexuality in the Hebrew Bible." *Shabbat Shalom* 49/1 (Spring 2002): 20-26.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0.
-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Edited by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Oxford, Clarendon Press, 1907.
- Horgan, Maurya P, *Pesharim: Qumran Interpretations of Biblical Books*. Washington: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79.
- Jastrow, Marcus.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almud Babli, Yerushalmi and Midrashic Literature*. New York, NY: Judaica., 1971.
- Keil, Carl F., and Franz J.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 Translated by James Martin. Repri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82.
- \_\_\_\_\_,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1. Translated by James Martin. Repri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83.
- Koehler, Ludwig,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ranslated and edited by M.E.J. Richardson. Leiden: E. J. Brill, 1994-
- Les tre, H, "Nudité." *Suppl ment au Dictionnaire de la Bible*. Edited by Louis Pirot et al. Paris: Librairie Letouzey et An , 1928-1985.

- 4:1712-1714.
- Lisowski, Gerhard. *Konkordanz zum Hebräischen Alten Testament*.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1.
- Luc, Alex T, “עַחֵם” NIDOTTE, 3:539-541.
- Niehr, Herbert. “עֵרָה 'ārā; מוֹרָה maár; אִמּוֹ עֵרָה 'erwá; עֵרָה 'eryá.” TDOT, 11:343-349.
- \_\_\_\_\_, “עֵרוֹם 'āróm; עֵירוֹם 'éróm.” TDOT, 11:349-354.
- \_\_\_\_\_, “עֵרָם 'āram; עֵרוֹם 'āróm; עֵרְמוֹה 'ormá.” TDOT, 11:361-366.
- Ojewole, Afolarin Olutunde, “The Seed in Genesis 3:15: An Exegetical and Intertextual Study.” Ph. D. dissertation, Andrews University, Seventh-day Adventist Theological Seminary, 2002.
- Rudolf, Wilhelm, *Micha-Nahum-Habakuk-Zephanja*. KAT. neue Reihe. Band 13/3. Gutersloh: Gerd Mohn, 1975.
- Sailhamer, John H, *Genesis Unbound: A Provocative New Look at the Creation Account*. Sisters, OR: Questar Publishers, Inc., 1996.
- Schultz, Carl, “עוֹר ('úr) II, Be exposed, Laid bare.” TWOT, 2:656-657.
- Seevers, Boyd V, “רָאָה.” NIDOTTE, 3:527-531.
- \_\_\_\_\_, “עֵרוֹם.” NIDOTTE, 3:532-533.
- Skinner, Joh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2nd Edition. ICC. Vol. 1. Edinburgh: T & T Clark, 1930.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 Vol. 1. Waco, TX: Word Books, 1987.
- Young, Edward J, *The Book of Isaiah: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Vol. 2.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69.  
Zimmerli, Walther, “zur Structur der alttestamentlicher Weisheit.”  
*ZAW* 51 (1933): 177-204.

검색어

아름

아름

에름

언어유희

인간 타락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단초

‘ārôm(ארום), ‘ārûm(ארום), and ‘êrôm(עירם): Their Meanings and Translations, and the Intention of the Exquisite Paronomasia

KyeSang Ha, Ph.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College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The Creation account of Genesis 2 and the Fall account of Genesis 3 are not only naturally related to each other but also dramatically contrasted by a rhetorical technique called paronomasia as shown in the three Hebrew terms *ārôm* (ארום, 2:25), *ārûm* (ארום, 3:1), and *êrôm* (עירם, 3:7, 10, 11). Unfortunately, however, this fact has been misinterpreted, as well as totally or partially overlook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usage of the three Hebrew terms in the Old Testament, to decide their meanings in each of

their contexts, to check the suitability of their translations, and finally to perceive the intention shown in the delicate wordplay the three Hebrew words create. The research was done mainly from the synchronic/literary perspective, while keeping in mind possible changes in their meanings through the ages. The results can be recapitulated as follows:

First, the Hebrew term *ʾārûm* employed for the description of the serpent in Genesis 3:1 is used obviously with a positive connotation and thus should not be translated as “cunning” or “subtle,” but “clever” or “wise.” The usage of *ʾārûm* in Genesis 3:1 may be a double entendre, connoting not only the “wise” serpent as the instrument of the Fall but also the “cunning” Tempter who made the serpent his instrument. In that case, however, there is no way to translate it suitably.

Second, the Hebrew term *ʾêrôm* (pl. *ʾêrummîm*) used in describing the post-Fall Adam and his wife in Genesis 3:7, 10, 11 means ‘complete nakedness’ of shame and humiliation, with genitals exposed, of which the meaning is clearly shown in Genesis 3 itself, and especially in Ezekiel 16:7 and 23:29, and thus it should be properly translated as “naked” or “nude.”

Third, the Hebrew term *ʾārôm*, chosen to describe the pre-Fall Adam and his wife predominantly connotes ‘partial nakedness’ in other contexts, but not ‘total nakedness,’ and thus should be contextually translated as “lightly dressed,” “poorly clothed,” or “in undergarments only.” The word *ʾārôm* (pl. *ʾārummîm*) in Genesis 2:25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their pre-Fall childlike innocence, but it rather seems to portray their being clothed with light, being in the “image of God,” just as God wraps Himself with light as with a garment (Ps 104:2). However, their robe of light must have departed forever soon after the Fall, and consequently they became *ʾêrôm* (pl. *ʾêrummîm*), that is, completely “naked.” Therefore, the translation “naked” is not

suitable for depicting their being clothed with light, but there is no proper translation of this word that denotes “robe of light.”

Last but not least, the reason for employing *`arúm* in Genesis 3:1 instead of *hākām* (חכם, “clever, wise”) or *sākal* (שָׂכַל, “be prudent, have insight”) must be for the rhetorical technique of the wordplay that it makes with *ʿarummim* (sg. *`aróm*) in 2:25 and *ʿerummim* (sg. *`eróm*) in 3:7, 10, 11. The paronomasia that *`aróm* (pl. *ʿarummim*, Gen 2:25), *`arúm* (3:1), and *`eróm* (pl. *ʿerummim*, 3:7, 10, 11) make may be intended to bring into prominence the point of departure for the tragic event of the Fall, dramatically contrasting the pre-Fall human appearance (*`aróm*) with the post-Fall human appearance (*`eróm*), as well as naturally connecting the Creation account in Genesis 2 with the Fall account in Genesis 3.

## Key words

*`ārôm*

*`ārúm*

*`érôm*

paronomasia/wordplay

the point of departure for the tragic event of the Fall

- 투고일: 2013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3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05일